

F-22, Edward 시험비행에 앞서 테스트 비행 성공적 수행

F-22가 지난 6월 29일 조지아 주 마리에타에서 있었던 성공적인 첫 비행에 이어, 8월말에 캘리포니아 Edward AFB에서 두 번째 시험비행에 참여할 예정이다.

Aircraft 4002로 지정된 두번째 F-22는 1시간 6분동안 계속될 시험비행을 위해 11일간 걸쳐 Test 비행을 실시했다.

Test 비행에서 F-22는 고도 12,000ft(6,100m), 스피드는 250에 이르렀다. 이 비행에서는 다양한 테스트를 포함, 엔진, 랜딩 테스트 등을 시험했다.

몇차례 결점보완과 시운행을 거쳐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Edward로 가져갈 것이라고 미 공군은 말했다.

첫 비행기인 4001은 11번 출격에 10시간을 비행하였고, 완벽한 비행이었다고 미 공군은 덧붙였다.

미국, 외국 파트너와 JSF 개발협상을 진행중

미국은 Joint Strike Fighter(JSF) 개발에 국제적 참여를 위한 계획에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이 전략은 올해말에 완전히 결정되고, 지금 참여국의 회

망하는 바에 대한 비공식 협상이 진행중이다. 완전한 협력 파트너인 영국과, 완전 단일 관련 구성원으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덴마크, 네델란드, 노르웨이가 포함된다. 한편 캐나다는 시장조사 중이며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는 협상이 진행중이다 2001년에 시작될 엔지니어링과 제조부분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참여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준비중이며 다른 협력국과 협의될 것이다.

칠레, 예산삭감으로 전투기 구매계획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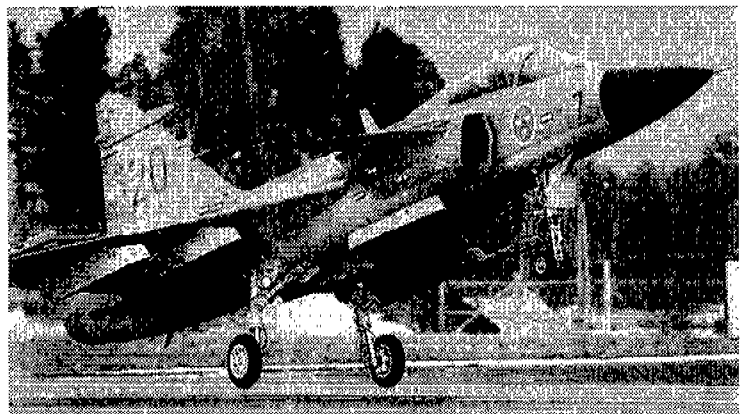
아시아 경제위기 영향으로 정부의 예산삭감에 따라, 칠레는 24대의 새로운 전투기를 60억 달러에 구입하는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구리 가격의 하락과 예산부족에 의해 타격을 받은 칠레정부는 1999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던 전

투기 구입의 일시적 연기를 포함, 긴축경제조치를 내렸다.

4개의 입찰회사인 보잉, 닷소, 록히드 마틴과 사브는 5월 말에 마지막 제시를 한 상태에서 6월말까지 칠레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임대 거래를 통해서라도 전투기 구매를 바라는 경쟁사들은 칠레정부와 계속 대화를 진행중이지만 결정을 위한 새로운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지금까지 구리 수출 세입에 칠레군의 10% 할당몫을 항공기 구매 비용으로 지불되어 왔으나, 아시아의 경제 붕괴로 올해 일사분기 구리 수출 세입은 2/3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 F2 전투기 개발기간 내년까지 연장

일본 방위청은 오는 99년 배치를 목표로 실용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F2 지원전투기에서 기체의



사브의 그리펜은 칠레의 차세대 대상기종중 하나이다

강도부족 등의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개발기간을 내년까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아키야마 마사히로(秋山昌廣) 방위청사무차관이 27일 밝혔다.

방위청은 이에 따라 본래 예정에 없던 비행시험 등의 경비로 내년도 예산안에 30~40억엔을 요청할 방침이다.

F2는 지난 88년 개발에 착수, 현재 비행훈련용 4대와 지상에서의 강도시험용 2대 등 모두 6대가 시험 제작돼 항공사위대 기후(岐阜)기지와 도쿄(東京) 기술연구본부에서 실용실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당초 98년말에 모든 시험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에 의한 지상실험결과 ▲대함, 대공미사일을 적재한 상태에서 주날개에 커다란 진동이 발생하고 ▲특정조건하에서의 배면(背面)비행시 문제점이 나타나는 등의 결함이 지적됐다.

F2는 美日 양국이 美 F16을 토대로 F1 지원전투기의 후속기로 공동개발한 것으로 경량화와 함께 선회, 이륙성능 등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청은 오는 2000년말까지 모두 28대를 일선 부대에 배치할 계획인데, 지금까지의 개발비는 3천2백74억엔이 투입됐다.

미 국방경비대, 수명에 다른 F-16 퇴역에 직면

미, 국방경비대는 초기모델 F-16전투기의 수명이 다다름에 따라 주력이 부족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F-16의 평균수명은 20년이며, 현재 미 국방경비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체 75대의 F-16 A/B는 1999에서 2005년 사이에 퇴역해야만 하며, 약 275대의 F-16 C/D는 수명연장 프로그램(SLEP)에 들어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Mini-SLEP는 비행기 수명을 연장시키나 많은 부가적 유용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Mid-SLEP는 더 많은 유용성이 있지만 새 전투기 제조에 필요한 비용에 맞먹는다고 밝히면서, F-16 A/B의 60~100대가 교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의 IPTN 프로그램을 수행하려고 노력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IPTN CN-235수송기 6대의 생산을 위해 재정, 승인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인도네시아의 항공제조는 경제붕괴에 따른 큰 타격을 입었다. 모두 6대의 CN-235-200

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IPTN은 승인을 준비중에 있으며, 양국은 또한 항공기의 판매를 위해 승인 등 현안의 해법을 함께 찾고 있는 중이다.

CN-235 프로그램은 현 경제위기를 벗어나도 문제점이 남아있지만 CASA CN-212의 경우, 비록 전체 108대중 16대가 아직 인도네시아 군대로 납품되지 않았으며, 인도 연기는 지급불능에 기인하였었다. IPTN은 2001년에 아랍에미리트로 4대의 해양순찰기중판매를 할 예정인데 그 중 첫 비행기를 제작 중이다. 해양순찰기종으로서 그리스, 필리핀, 타이완에 수출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